



“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제과·제빵과 주류를 판매하는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업종 재분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과 제빵 업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베이커리> 독자 여러분! 꿈과 희망으로 출발했던 갑신년 한 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장막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과업계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제과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협회는 지난 11월 24일 회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협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동업일가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온 것과,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 모두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42년의 긴 세월을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업계의 원로님, 협력업체 여러분 그리고 본 협회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고 애쓰신 전국 지회·지부장에게 회관 개관의 영광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잃어버린 제과·제빵 업종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 경제 중심권에 들어있고 한국제과기술수준이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는 현 시점입니다. 세계 150여 개국 이상이 제과·제빵 업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제과점 영업 허가를 기피하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취득하여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비상도의적인 업체는 제과점 영업을 폐업하고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제과·제빵과 주류를 판매하는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업종 재분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말에 음식으로도 못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건강은 식품제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다행스런 점은 현 정부에서 식품제조에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식품정책과를 신설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원 여러분! 앞으로는 국가 뿐 아니라 각 업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도 기술개발, 둘째도 기술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업종도 최선을 다해 기술개발에 매진할 때 장기적인 비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려운 때일 수록 서로 협력하는 지혜는 1+1이 3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하여 업계의 발전도 함께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최고 품질의 제품 생산과 고객 서비스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제과인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협회는 밝아오는 새해에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성숙된 모습으로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베이커리>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베이커리 정보 전달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소개에 앞장설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베이커리>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 대한제과협회장 김영도